

강진, 폭염에 펄펄 끓어도 ‘강진군 경로당은 안전지대’

강진군이 연일 이어지는 역대급 폭염으로부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내 342개소 경로당을 완벽한 '무더위 쉼터'로 탈바꿈시키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군은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폭탄 걱정 없이 에어컨을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관내 경로당 342개소에 2개월간 총 1억300만 원의 냉방비를 긴급 지원했다. 무더위에 가장 취약한 고령층이 경로당에서 마음 놓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을 마련한 셈이다.

이와 함께 냉방기 가동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비 사업도 마쳤다. 760만 원을 들여 57개소 경로당의 에어컨 81대에 대한 가스 충전과 정밀 분해 세척을 완료했다. 에어컨 내부에 번식하기 쉬운 곰팡이와 미세먼지를 원천 차단해 냉방 성능 향상은 물론 호흡기 건강까지 꼼꼼하게 챙겼다.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 조성

을 위한 세심한 위생 관리도 병행된다. 군은 총 7,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로당 내 공기청정기 401대의 필터 교체와 전문 청소를 실시한다. 아울러,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한 해충 및 감염병 막기 위해 경로당 긴급 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땀질식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인프라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약 2억 2,300만 원을 투입해 101대의 노후 에어컨을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 완료해 관내 어디서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가장 소중한 여가 공간이자 폭염을 피하는 생명줄과도 같은 곳"이라며 "단순한 냉방 지원을 넘어 위생과 환경까지 꼼꼼히 챙겨 어르신들이 여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운재 기자



강진군이 폭염에 대응해 관내 경로당에 냉방비를 긴급 지원,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고 있다.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무안군, '망운 해피 마마학당' 제2기 졸업식 개최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무안군은 지난 1일 망운면 문화복지센터에서 졸업생 32명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망운 해피 마마학당' 제2기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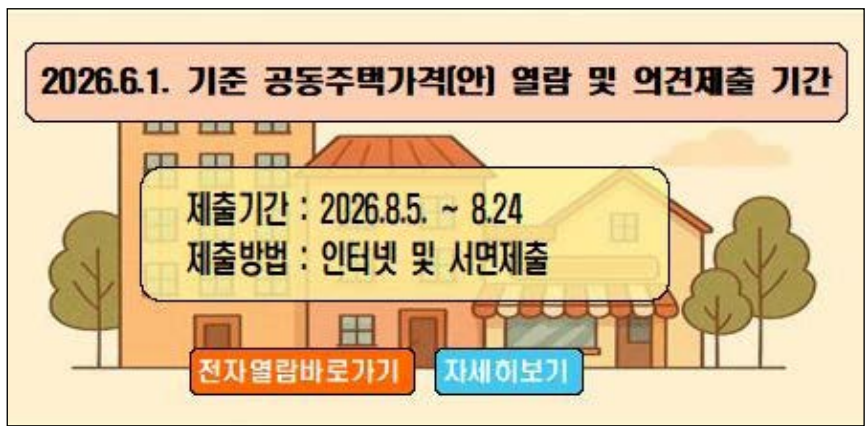
이번 졸업식은 한 달간 진행된 마마학당 교육과정을 마무리하고, 교육에 성실히 참여한 어르신들의 졸업을 축하하며 그동안의 배움과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졸업식은 식전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졸업장 수여, 축하, 소감 발표, 답사, 가족 편지 낭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어르신들이 교육과정에서 직접 만든 안마봉과 꽃고무신, 나만의 화분 등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졸업생 대표 지경애 씨는 "마마학당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지낼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용운 기자

목포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접수 안내 사진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오는 8월 5일부터 24일까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합병·분할, 건물의 신축·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44호와 해당 공동주택이다. 다만 무허가 등 미공시 주택은 제외된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주택가격은 목포시청 세정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61-270-3580)로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박성태 기자

함평자동차극장, 9월1일 잠정 휴관...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전환

전남광주통합특례시 함평군은 군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해 온 함평자동차극장을 오는 8월 31일 상영을 끝으로 잠정 휴관한다고 밝혔다. 함평자동차극장은 2021년 개장 이후 차량 안에서 영화를 즐기는 지역 이색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문화시설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OTT 확산

등 영화 관람 환경 변화로 관람객이 지속 감소하면서 운영비 부담이 커졌다. 실제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누적 관람대수는 3만3,274대, 운영손실은 약 7억9,322만 원에 달했다. 또한 오는 9월부터 추진되는 내교·기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으로 일부 상영관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휴관을 결정했다.

함평군은 변화한 운영 여건을 중

합적으로 검토해 자동차극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황금박쥐관을 중심으로 다목적 문화공간과 축제·행사 지원 시설 등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함평군은 군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 콘텐츠 발굴과 공간 활용에 힘을 예정이다.

/이문수 기자

영암군, 청년문화행사 기획단 위원 모집

영암군이 청년의 아이디어를 지역 문화행사에 반영하고 청년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는 '청년문화행사 기획단' 위원을 모집한다.

청년문화행사 기획단은 지역 청년이 주도적으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운영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참여기구다. 청년은 물론 인근 상인과 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역

특성을 살린 청년문화행사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맡는다. 모집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청년문화행사 기획에 관심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영암군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청년이다. 선정된 위원은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며 월 1회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에 참여한다. 청

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안을 하고 행사 기획 과정에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영암군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영암군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kds003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이문수 기자

신안군, 도서지역 폭염·가뭄 총력 대응

신안군은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지난 3일 폭염·가뭄 대응 추진상황 대책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등 군민 안전 확보와 농·축·수산업 피해 최소화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양식장 고수온 대응, 가뭄 대비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해 폭염과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신안군은 섬 지역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도서지역별 기상 상황과 용수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군민 불편과 농·축·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성태 기자

